

기획대담

## 중국의 학술사와 현대성 : 장칭(章清) 교수와의 대담

일시: 2012년 5월 3일

장소: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참가자

장칭(章清)(푸단 대학 역사학과)

최은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박영순(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오병수(동북아역사재단)

장칭 교수는 현재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1964년 쓰촨성의 루저우(瀘州)에서 태어나 1982년 푸단 대학에 입학한 후 1989년 석사학위, 1998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장칭 교수는 중국의 근대 학술사와 문화사, 사상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胡适派学人群'与现代中国自由主义』(上海古籍出版社, 2004), 『近代中国的国家形象与国家认同(主编)』(上海古籍出版社, 2003) 등을 통해 근대 지식인의 사상사적 흐름에 대한 연구성과를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 1. 학술사(學術史), 현대성에 대한 전망

먼저 지난 10월 푸단 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대지식 전환 및 지식 전파: 1600~1949’라는 회의 주제를 보면 17세기 이래 중국 근대지식 전환을 중심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근대 중국을 살펴보고, 특히 동아시아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양 지식을 어떻게 중국이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사와 개념사 그리고 사상사 등 분야에 조예가 깊은 연구자들이 그 회의에 참가하였으니 수준이 상당히 높은 학술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선생님께서는 행사의 조직자로서 회의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한국학계와 이와 같은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개최된 회의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번 회의 개최 전에 푸단 대학에서는 이미 비슷한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기부터 푸단 대학 역사학과가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Erlangen-Nurnberg) 대학 중문학과와 자매관계를 맺었으며,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예컨대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중국·서양 학술교류: 역사 및 철학의 차원에서’ 외에 중국국가유학기금위원회 및 독일학술기금회에서 공동 지원하는 ‘중국 현대학과(學科)의 형성’(The Formation of Modern Scientific Disciplines in China) 프로젝트도 신청했습니다. ‘현대화 과정에서 문화구조의 전환: 서양지식의 동아시아에 대한 침투’, ‘중국·서양 학술교류: 현대학과

형성의 시야' 등을 비롯한 과제의 진행에 따라 저희 역사학과는 '학과 지식'(學科知識)을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세미나를 이미 세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및 한국 등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의 학술회의에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근대의 지식 전환과 전파가 이미 국제 학술계에서 중요한 화제가 되었으며, 각국의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에 입각해 이와 같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연구주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중국의 근대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근대의 지식 전환과 전파에 대한 논의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각도에서 중국의 근대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대 중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變'(변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외 문화교류 과정에서 등장한 학과를 상징으로 한 근대지식에 대한 논의는 근대 이래의 중국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대 중국의 사상과 학술의 현대화로의 전환에 있어 기본적 원동력은 중외 문화교류이지만, '서학'(西學)의 단계별 전파와 흡수와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중국 당대 학술의 이론과 실천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부터 대량의 현대학과 양식으로 쓰여진 역사 회고를 통해 '중국의 과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대의 지식 전환문제는 현대성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중국사회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점차적으로 전통적 중국사상 자원에서 벗어나 서양의 현대지식을 채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근대 중국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과 지식을 통해 중국 근대사를 조명하는 것은 중국사회에서 학과 지식의 성장과정을 정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사회 전환과정에서 학과 지식의 의의에 대한 재인식이기도 합니다.

2011년 10월 푸단 대학 역사학과에서 개최한 학술회의는 타이완 중앙연구실 '주제계획'(主題計劃)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연구자들

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번 회의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주제를 통해서 몇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토론 주제의 시간을 '1600~1949년'으로 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학동점'(西學東漸)은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와 함께 연계되었으며, 즉 명말청초에 출현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주제의 시간대를 이렇게 정한 것은 실제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전통학술의 분류와 근대 전환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및 서양의 학술교류, 상호영향, 분열 및 재건 등 복잡한 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의 참가자들은 중국 전통학술의 자체 분화(分化)에 대한 탐구를 중요시하였습니다. 둘째, 회의주제인 '지식 전환과 전파'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 참가자들은 과거의 사상사 및 학술사 범주를 넘어 출판·소비·지식 재생산 등의 일환에서 서양 학과지식의 중국에서의 재구성 및 이행(實踐)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신문화사'(新文化史) 방법론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즉 근대 서양 학술서적에 대한 고찰에 있어 판본을 고려해야 하는 것 외에 현지의 지식생산과 신형 언론매체 등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이 또한 '신문화사'가 서적사(書籍史)와 독서사(閱讀史)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적사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문화사'는 이미 국제적 현학(顯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 역사학과에서 진행하는 과제가 주로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중점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역사학·지리학 등 전통학과가 어떻게 전환되었는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정치학·사회학 등 사회학과와 물리학·생물학 등 자연학과를 비롯한 신흥학과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근대학과 설립이라는 문제를 아래와 같은 상호 연계된 두 방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서학' 전파와 관련된 저작과 문

장(번역 작품과 獨立文本 포함), 학과별 전문용어의 번역과 표준용어의 등장 그리고 중국사상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용어 응용 등이고, 둘째는 ‘지식 분과(分科, 분류)’ 발생의 제도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구체적 분석입니다. 주로 ▲단계별 교육 중 새로운 과정(課程)의 도입 및 소개 ▲관련 연구기관의 설립 및 발전 ▲새로운 학과에 대한 대중의 반향과 해당 시기의 역사 재건 등 세 가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학과별 전문용어의 번역·도입 및 규범적 용어로서의 형성 과정 2) 학과별 논저의 체계적 출판(번역과 편역 저작 포함) 3) 교육체계에서 단계별 과정의 학과 개설 4) 관련 연구기관의 중국에서의 설립 5) 학과별 중국역사의 편찬 6) 학과별 지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등입니다.

1-2. 최근 한국 또한 반성적 입장에서 ‘지구사’(global history)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각에 입각해 근대사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근대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계십니까? 또한 ‘근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지식사와 학술사는 근대사 해석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 100년간 중국 사상사의 변화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술계가 거의 1960년대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반적 연구 흐름을 대략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즉 과거에 주로 ‘충격-반응’ ‘전통-현대’ 등 이원적 모델을 활용하면서 근대 중국의 사상과 학술을 조명하였는데, 최근 들어 학술계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중국의 근대 학술사에 접근한다는 연구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대 중국에서 나타난 ‘다극 세계’(多个世界)와 ‘다기성’(多歧性, Divergence)의 특징은 점차적으로 중국 근대사 연구학자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중국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 연구의 영원한 고민인 만큼 '단위'의 선택은 중국 근대사 연구에 있어 가장 핵심적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폴 A. 코헨(Paul A. Cohen)이 제기한 '중국중심관'(中國中心觀)을 예로 말하면 중국사회를 수평적으로 지역(區域)·성(省)·주(州)·시(市)·현(縣) 등으로 나누어 지역 및 지방사를 연구하고, 수직적으로는 여러 개의 계층을 나누어 상대적 하층사회의 역사(민간 및 비민간 역사 포함)를 고찰했습니다. 즉 해외 중국학의 경향 또한 중국을 더욱 작은 '연구 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근대 중국의 사상과 학술 전환에 따라 학술계 역시 점차적으로 페이정칭(費正淸)·리에원쑤(列文孫) 등이 제기한 이론 모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적 원인은 1960년대에 등장한 이론 모델이 너무 단순하여 근대 중국의 복잡한 사상 전환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론 모델은 '진보주의'와 '보편주의'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근대 중국 사상사의 복잡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는 '변화'(變) 및 '불변'(不變), '중심'(中心) 및 '주변'(變緣)에 착안하여 근대 중국의 사상과 학술 전환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특히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새로운 각도에서 근대 중국의 더 많은 모습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륙 및 연해, 남방 및 북방, 엘리트 및 대중 등의 구별이 근대 중국의 사상과 학술 전환의 기본적 특징을 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대 중국의 학과지식 성장을 논의하고자 하면, 지난 100년간 중국사회의 거대한 변화는 물론이고 시기별, 단계별, 영역별 전환의 범주와 경로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성을 되돌아보는 데에 근대지식 성장에 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한 착안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도 매우 간단합니다. '과학'을 상징으로 하는 근대 분과지식(分科知識)은 '현대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

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로 각 국가와 지역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성'을 수용했는가 아니면 비판했는가는 실제로 공동적 경험으로 많은 국가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구사' '세계사' '국제사' 등의 틀을 활용하여 근대사와 근대지식의 성장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언어현상에 대한 분석은 똑같습니다. 지식 형성과정에서 언어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마다 새로운 개념이 계속 출현하고,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마다 다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가 이와 같이 비슷한 문제에서 유럽 학자의 인식을 알게 되고 중요한 이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들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학자들은 한자 신조어에 대한 '역사적 의미론'(Historical Semantics, 개념사) 분석, 즉 '텍스트'와 '언어환경'을 결합해 '개념'을 분석하는 데에 점차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념사'란 '역사적 의미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등장하여 가시적 발전을 이룬 '개념사'는 현재 영국 '옥스퍼드학파'에서 비롯된 '관념사'와 함께 근대지식 성장을 연구하는 주요 이론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의 말안장시대(saddle period) 이론에 따르면, 언어에서 나타난 개념 전환은 단순한 표상(表象)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코젤렉 또한 개념이라는 차원에서 현대세계의 탄생을 제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와 같은 개념과 방법론을 익히면 동아시아문제, 중국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조할 만한 주요 이론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3. 1990년대에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는 중국 역사학계가 학술사를 중요시하였으며 이를 둘러싸고 뜨거운 토론도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중국 학술사 연구의 의의와 미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지 않은 학자들이 1980년대는 사상이 유행한 시대이고 1990년대 들어서는 사상에서 학술로 이동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표현은 혼동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어 언어환경에서 ‘사상’과 ‘학술’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學’ 및 ‘政’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學高于政’(‘政’보다 ‘學’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관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궁쯔전(龔自珍)은 “一代之治, 卽一代之學”(한 세대의 치리는, 즉 한 세대의 학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청나라 말 명신(名臣)인 장즈통(張之洞)은 이에 대해 “世運之明晦, 人才之盛衰, 其表在政, 其里在學”(세상의 좋고 나쁨은 인재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으니, 표면적으로는 정치를 중시해야 하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더 중시해야 한다)라는 독특한 견해를 표했습니다. 물론 당시 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80년대에 중국의 사상계는 활력을 보였습니다. ‘계몽’, 즉 지식의 르네상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토론한 문제는 농후한 인문정신을 지니고 현실과도 많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론이 어떻게 더 심층적 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풀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토론이 겉에만 머무르고 속으로 깊이 파고들지 못한다면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적지 않은 학자들 역시 학술적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더 깊이 있게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실제로 학술 발전의 내적 요구를 반영하고 위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환은 분명히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고 싶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별적 사건을 통해 이를 더 잘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한 이분법으로 이와 같은 시대를 명명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은 원래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고 학술 사상계도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 2. 개인적인 연구주제와 연구성과

2-1. 선생님의 연구경력을 보면 오랫동안 학문에 몰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선생님께서는 쓰촨에서 태어났고 푸단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소년 시기나 1960년대 푸단 대학에서 공부하던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특히 연구에 있어 깊은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적 사건이 있습니까? 특별히 학문 생애에 있어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문화대혁명' 및 '1989년 사건'과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지도교수 등을 포함한 개인적 사정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 경력은 매우 간단하여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저는 1982년 쓰촨에서 상하이에 있는 푸단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세대가 중국에서 '60후'라고 불리게 됩니다. '60후' 세대는 중국에서 각종 시련을 가장 적게 겪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77', '78'학번<sup>1)</sup>은 거의 '상산하향'(上山下乡) 운동

1) 77, 78학번은 중국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왔다.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으로 10년 동안 문을 닫았던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1977년 대학입시를 부활시켰다. 1977년 겨울과 1978년 여름에 대학입시를 치렀다. 77학번과 78학번이 탄생한 것이다. 77, 78학번은 문화대혁명의 어려움을 몸소 겪은 뒤 1978년 이후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의 수혜자들이다. 개혁개방정책 이후 처음 대학교육을 받는 세대라는 뜻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시골에서 농

을 몸소 경험한 뒤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대학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고 인원 수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60후'는 거의 학교에서 성장해왔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대학교까지 순탄하게 간 사람 중에서 일부만 하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 경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생활했던 환경은 제가 중국 근대사를 사고하도록 계속 자극시켰습니다. 중국의 연해와 내륙은 서로 다른 세계를 구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성'을 바탕으로 중국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학자로 성장해오던 과정에서 대학 및 대학원 지도교수들은 저한테 아낌없이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영향까지 끼쳤습니다. 초기에 진행했던 연구는 이들의 도움 덕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역사를 배운 것은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선택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개혁에 따른 '긴장감'(緊張感)과 경제적 이익 추구로 인하여 역사학과 같은 기초 학과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도 사실 계속 학자의 길을 걸으리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정치적 및 경제적 원인으로 능동적이나 수동적으로 역사학 연구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변화가 너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계속 역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사를 짓거나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군인 등을 지내면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다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7&artid=17567&pt=nv>).

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학술 연구의 길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2. 선생님의 첫 논문은 취추바이(瞿秋白)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당시 취추바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당사(黨史)에 치중되었으나, 선생님께서는 문화론과 마르크스주의 차원에서 취추바이를 연구하셨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으로서의 취추바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대학 시절에 근대 중국사상 연구를 시작한 첫 출발점으로 근대사상이 가운데 취추바이를 선택한 것은 실제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 지도교수는 취추바이 문집을 편찬했는데, 제가 『다여적화』(多餘的話)를 읽고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취추바이는 원래 뛰어난 재능을 갖춘 지식인에 불과했으나, 중국공산당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역사의 ‘오해’에 불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여적화』를 읽은 후 당시 저는 취추바이가 쓴 책과 자료를 모두 찾아 체계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덕분에 그 시대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논문은 취추바이가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하는 데 말은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당시 ‘근대 역사학의 성장’과 ‘학술 발전’이라는 저 개인의 관심 주제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취추바이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추바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의 작품이지만 괜찮은 간행물에 기재되었습니다. 논문 발표 이후 비교적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는 연구 초보자인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근대사상 학술사 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이를 연구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2-3. 선생님께서는 후스(胡適)를 중심으로 한 '5·4운동' 시기의 학술사상과 방법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특히 당시 계몽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지식인 그룹, 예컨대 후스부터 인하이광(殷海光)까지의 자유주의 지식인을 주로 연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이나 계기를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구대상을 취추바이에서 후스로 바꾼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1930년대 상하이에 활약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스에 대한 연구는 그가 창간한 『신월』(新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작품은 '신월파'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연구였으며, 후스 등을 비롯한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논 의하였습니다. 해외 중국학계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보수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분석 틀을 활용하여 근대 중국사상가의 계보를 그리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중국 대륙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수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글이 저의 글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목에 '자유주의'란 글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유주의'가 중국어권에서 다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후스도 '자유주의자'의 신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긍정적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의할 만한 것은 후스 외에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자유주의 계보에 편입되어 이들의 기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2-4. 선생님께서 당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인하이광을 학술 계보에 편입시키고, 계몽 지식인으로까지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인하이광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당시 유명하지 않은 인하이광

### 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제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륙 지식계에서도 인하이광이란 이름이 알려진 것은 중국 대륙지역과 타이완의 교류가 점차 활성화된 이후였습니다. 1950년대 초 진웨린(金岳霖)이 자아비판이라는 글에서 인하이광·선여우딩(沈有鼎)·왕하오(王浩) 등 3명은 시대를 따르지 못한 제자(弟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당히 긴 기간에 대한 그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 다. 1949년을 분계선으로 인하이광은 생애의 전 30년을 대륙에서 살았고, 그에 이어 타이완에서는 나머지의 20년을 지냈습니 다. 그가 대륙을 떠날 때 정치나 학술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주변인물이었으며 남아 있었던 역사적 기록도 많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타이완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명성이 점차 높아졌으나, 대륙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인하이광을 연구한 것은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석사학위논문은 후스의 말년 사상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1950~60년대 후스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저절로 인하이광이란 이름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1949년에 타이완에서 창간된 『자유중국』은 당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하이광은 바로 이 잡지에서 활약했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후스에 이어 인하이광을 연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근대사상사의 흐름에 따른 연구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근대사를 연구하고자 하면 학술 연구이든 정치 연구이든 1949년 이후 타이완에 갔던 지식인이 어떤 상황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유주의가 타이완에서 발전한 것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자유주의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중국』이 당시 담당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역할은 과거 지식인들이 창립한 간행물과도 구별되었

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근대 중국 자유주의의 사상 계보를 완전히 알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5. 선생님께서 인하이광을 매개로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의 계보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가 갖고 있는 학술적 의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949년 이후 30여 년 동안 타이완은 계속 중국 대륙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하이광과 같이 대륙과 타이완에서 모두 활동했던 지식인의 사상 변화를 조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자료 부족이 주된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하이광의 저작을 거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홍콩 및 타이완을 여러 번 방문하여 인하이광과 연관된 간행물에도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 쌓여왔던 장벽과 그에 따른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정통(韋政通) 선생님의 요청에 응하여 인하이광 연구의 첫 글을 쓸 때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세계철학자 총서』가 인하이광의 사상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글에서 '5·4' 이래 근대 중국사상의 발전과정에 따라 인하이광의 일생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인하이광에 대한 부족한 연구를 보완하였습니다.

당시 해외에서도 인하이광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이유는 해외 학자들이 인하이광과 거리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하이광이 대륙에 있을 때 그의 사상의 성장과정과 결합하여 논의하는 글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하이광의 대륙활동에 대해 거의 모른 상태였고 그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은 모호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주

로 인하이광의 자술 자료로, 너무 간단할 뿐만 아니라 회고에서도 잘 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글에서 저는 근대 중국사상사에서 인하이광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하이광이 대륙에서 살았던 30년은 그의 사상의 성장 초석이 되었습니다. 생소한 타이완에 가서도 그의 언론과 문제의식 또한 과거 생활했던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근대 중국의 사상 변화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하이광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정치적 원인으로 단절된 역사가 다시 연결된 것으로 이는 저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 선생님의 전반적 연구를 보면 ‘자유주의(후스 및 인하이광)’ ‘지식인 그룹(지식계·사상계·학벌사회)’ ‘(학과)지식 형성’ 3개의 핵심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사 연구에 몰두하게 된 배경과 의의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근대 중국의 자유주의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유주의가 중국에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이든 민주, 박애, 평등이든 근대 중국 지식인들이 이와 같은 가치관을 보편적 가치로 삼고 계속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유는 개인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유’는 ▲가치관으로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가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법치(法治)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 등의 구체적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주의’는 청나라 말기에야 중국어권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추구, 사회적 요구와 긴밀하게 연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00년을 전후하여 지식인들은 국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더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량치차오(梁啟超)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대 중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치적 질서가 장기간에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잘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은 실제적으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적으로 ‘자유주의’와 그 핵심 개념들이 중국 사상계에 등장한 것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주의’와 달리 ‘자유주의’에 대한 공감이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에 대한 인식은 논자마다 매우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자유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 재건’, 즉 사료부터 선별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제가 『후스학 연구그룹』(胡適學人群) 및 현대 중국 자유주의』를 쓴 이유는 이와 같은 노력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식사회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이에 대해 더욱 깊은 연구를 진행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 개념에 대한 정리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식사회학’이 특정 사상방향을 연구할 때 확정해야 할 임무, 즉 사회 변화가 사상의 ‘범주’(視野)에 침투하는 것에 주목하여 그 역사와 사회적 기초를 복원함으로써 그것이 정신 영역 전반에 유포된 영향과 범위를 보여주는 방법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자유’와 ‘자유주의’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자유’라는 개념으로부터 중국식 자유주의를 논의한다면, ‘역사적 시각’(historical dimension)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그에 내

재된 다양한 사상 자원들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중국어권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단초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Liberty (freedom)'라는 말이 번역되면서부터였습니다. 1860년대쯤에 각종 사전에는 '自主' 혹은 '自由'라는 단어가 영어의 'Liberty(freedom)'의 번역어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상계에서는 애초부터 '자유'라는 개념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이해하였습니다. '자유'를 '자주의 권리'(自主權)로 표현한 것은 '자유'에 대한 상상과 함께 '자유'가 비난을 받게 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1900년대 전후에 중국어권에서 '자유주의'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각종 '주의'가 중국에서 유행했습니다. 이는 중국 사상계가 세계사의 발전과정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국 미래의 사상방향을 모색하려는 것과 관련된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 말기에 각종 '주의'가 유행했으나 유독하게 '자유'는 하나의 '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유'라는 표현에는 부정적 함의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차원에서 청나라 말기에 중국 사상계의 '주의'에 대한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자유'가 '주의'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시 중국 사상계가 중국 실정에 부합하는 '주의'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5·4운동 시기에 들어 새로운 논쟁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보편사'(Universal History)의 틀 속에서 중국사회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을 모색하려는 데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서양의 분열'이 중국 사상계에 두드러진 영향을 끼쳤습니다. '분열'은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대전, 파리회담 및 5·4운동은 모두 '분열'을 초래한 요인들이었습니다. 서양 세계가 더 이상 '아름다운 신세계'가 아니었고, '자산계급문명'에 종속된 '자유주의' 역시 함께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5·4사

상은 자유주의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서양의 분열이라는 배경 아래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특정하자면 18~19세기의 정신유산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언급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일맥상통합니다. 대체로 5·4운동 시기 중국 사상계의 ‘자유주의’에 대한 표현들은 ‘개인주의’나 ‘개인의 자유’ 확산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서양’ 및 ‘자본주의’와 연결된 부호였을 뿐 학술적으로 해석되지 못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모두 현대 자유주의 사상이었지만, ‘자유주의’라는 표현은 점차 ‘사회주의’로 대체되는 것이 두드러진 추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 역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5·4운동 시기에 자유주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그에 내재된 함의 역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와 흡사할 뿐이었습니다.

2-7.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 등과 관련되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선생님께서는 항상 대립적 관점보다는 ‘교차’(交會), ‘혼용’(混用)적인 관점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특히 후스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 혹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까?

중국 근대사에 대한 해석은 오랫동안 거의 이분법적 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대륙지역은 물론이고 해외의 중국학 연구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나라 말기 및 민국 시기의 역사를 고찰할 때, 특히 사상사 및 학술사를 바탕으로 관련 분석을 할 때에는 중국 근대사회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들은 “3,000년간에 전례 없는 변화”라며 공감했습니다. 여기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變’과 ‘不變’을 어떻게 취급하고, 특히 변화의 범주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근대사회를 ‘전통-현대’ 그리고 ‘연해-내륙’이라는 이분법으

로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영토가 넓어 다양성과 차별성의 특징이 매우 뚜렷합니다. 어떠한 2차원적 분석법을 활용해도 중국 근대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근대사 해석에 있어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중국 근대사 전반에 걸쳐 설명하기 어렵고 역사의 한 단면 혹은 개별적 사건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가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근대사 연구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대사 연구의 단편화(fragmentation)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편화 연구는 지엽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 근대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제가 어떤 잡지사의 초청을 받아서 이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근대사가 저희한테 남겨준 사료들은 개별적 사건만 분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지엽적 부분 혹은 역사의 한 단락만 잘 해석할 수 있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근대사 전반을 해석하고자 하면 이분법과 같은 간단한 틀을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분석법에는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비판의 필요 전제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역사 연구의 단편화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청나라 말기 이후 역사학이 '현대학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역사학자

들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문제가 중국 근대사 연구에서 더 두드러진 이유는 현대 역사학의 학과 평가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맹목적으로 새로운 사료를 구하는 것은 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학의 학과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8.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차’ 및 ‘혼용’적인 중국 근대는 서양 근대와 차별화된 ‘특수한 근대’ 아니면 ‘다원적 근대’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논의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양의 근대 전환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근대 서양의 사회 전환을 특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든 막스 베버(Max Weber)든 만년의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든 모두 서양의 특수성에 입각해 서양사회의 전환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非)서양 국가들은 ‘근대’에 열중하면서 오히려 서양사회에서 비롯된 가치를 적극 수용·보편화시키고, 심지어는 서양사회가 겪었던 모든 것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중국 근대사상사 연구로 이름이 잘 알려진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는 이에 대해 비서양 국가에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양권은 서양과 비서양의 충돌을 언급할 때 항상 18~19세기 이래 서양이 이미 정치, 사회 및 이데올로기 등 방면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종합체로 이루어졌다고 타당하지 않게 가정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세계의 전반적 구조가 서양의 충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즉 서양사회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서양 국가들은 서양사회를 ‘아름다운 세계’로 여기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서양처럼 근대화를 실현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즉 중국이 서양의 충격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니다. 이 때문에 서양문화를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1840년보다 더 일찍 서양과 접촉하기 이전에 서양의 중국사회에 대한 충격은 겉핥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인식과 ‘반응’(反應)은 대부분 전통적 사상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양문화가 실제로 중국사회에 의해 수용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보편사’ 틀을 받아들이고 그 틀 속에서 중국 역사를 인식하였다는 점입니다. 최초에 중국 역사를 ‘상고(上古) → 중고(中古) → 근대(近代)’라는 진화과정으로 이해하였는데, 마르크스주의 등장 이후 중국 역사를 ‘원시사회 → 노예사회 → 봉건사회 → 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등 5단계 사회형태의 교체과정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역사 해석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공통된 인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2-9. 선생님께서는 중국 근대사에서 지식인들의 역할 그리고 지식인과 국가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범주가 좀 넓네요. 근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긴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새로운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중국사회에서 과거(科擧)제도 때문에 지식인들은 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어 근대사회에 들어 이 계층의 상황이 어떤지, 여전히 사회의 중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학계에서는 토론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1990년대 초 위잉스(余英時)가 ‘중

국 지식인의 주변화'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학계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편으로 공부하는 학자들 지식인이든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근대사회에서 크게 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제도의 폐지는 역사의 한 단락이 종결된 사건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지위상승의 길은 물론이고 지식인과 국가/사회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은 다른 차원에서 과거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지식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생산방식'만 과거와 달라졌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제도는 과거제도를 대체하였지만 '지식인 양성'이라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지식인이라는 사회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역할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사회 역시 지식인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대사회에 진입한 이후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엘리트 계층은 여전히 교육을 받은 집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엔지니어든 교사든 아니면 공무원이나 군인이든 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회의 변환에 따라 지식인의 진로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사회에서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0.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국제적 학술교류에도 적극 참여하십니다. 한국, 중국 및 일본 학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몇 년간 확실히 동북아 3국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중국학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에 학술교류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 개인적인 생각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주로 중국 근대사를 연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중국 근대사 연구와 비교하면 중국역사는 중국에서는 국사라고 하는데, 한국 및 일본에서는 외국사라고 불리곤 합니다. 이는 가장 뚜렷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학계에서는 여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사 연구를 ‘외국사’(外國史)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국사’는 좋지 않고 ‘국사’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국마다 역사 연구에 있어 독특한 학술적 축적과정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근대사를 똑같이 연구하지만 각국의 관심 주제와 접근 각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학술교류에서 별로 장애가 없지만, 여타 국가의 연구현황을 철저히 알고 싶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국이 타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것은 자국 관련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국의 역사문제를 중국역사에 대한 연구에도 비추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학 연구학자들은 ‘국가’ 및 ‘국민’ 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푸단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밟던 한국 학생들 가운데 몇몇 학생은 이와 관련된 논문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입각하여 근대사를 살펴본다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학과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었습니다. 학과 구조에 있어 ‘서양사’와 ‘동양사’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의 중국사 연구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1990년대 상하이에서 후스 연구에 관한 회의에서 민두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학자와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 3. 중국 지식, 지식인 지형 및 네트워크

3-1.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쉬지린(許紀霖) 선생님께서 편찬하신 『20세기 중국의 지식인을 말하다』(전2권)를 번역·출간했습니다. 선생님이 쓰셨던 「학술 사회」의 건설과 지식인의 ‘권력네트워크」 역시 이 책에 수록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글을 통해 당시 지식인 권력네트워크의 축소판인 『독립평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글에서 선생님이 “지식인들이 유학해서 귀국한 이후 학술계, 출판물 발행 등에 뛰어들었다. 이와 같은 공통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인들 간에 학술적 권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民国 시기에 지식인들은 정치적 권력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상층과만 소통할 수밖에 없었고, 하층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중국 지식인들이 정치적 권력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 권력에 대한 의뢰보다는 ‘대중과의 소통’의 길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국 지식인과 정치권력 간의 관계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근대사회에서 지식인들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글에서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실제로 지식인을 이해하면서 동정(同情)한다는 감정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가죽이 없으면 털이 어찌 붙을 수 있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전』(左傳)에 나오는 이 말은 역사에 조예가 깊은 마오쩌둥이 중국의 지식인에 대해 말할 때 즐겨 인용하곤 했던 구절입니다. 어찌되었든 ‘털’과 ‘가죽’의 관계에 대한 논증은 지식인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한 것이고, ‘사’(士)에서 ‘지식인’으로의 전환을 고찰하는 데 착안점이 되기도 합니다. 1905년 과거제도의 폐지는 역사의 한 단락이 종결된 사건으로 ‘사’라는 계층을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지식인이 여전히 존재하였기 때

문에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신분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과거제도 시대를 벗어난 독서인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인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반드시 이상적 방식에 따라 구현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 모델이 꼭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립평론』을 통해 모였던 지식인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다중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중의 신분은 그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고 사회 발전에 따라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다중의 신분을 맡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출발하여 당시 유행했던 논의에 대해 응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중국 지식계에서는 천인커(陳寅恪), 왕귀웨이(王國維)와 같이 상아탑에서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던 학자만 높이 평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치를 멀리하고 서재에서 연구만 하는 학자가 그 사회에 필요하고 존경할 만한 지식인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든 순수한 연구에만 몰두하든 이와 같은 지식인들은 모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천인커와 후스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인데, 두 분은 실제로 서로 아끼고 많은 방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담당 가능한 다중의 역할에서 한 가지만 잘 수행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아니면 다중의 역할을 잘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식인들은 모두 존경할 만합니다.

현재 지식인의 다중 역할 및 신분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지식인들이 다중의 역할을 맡을 때 목적이 그다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한 가지의 역할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식인들 역시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

다. 사회적 직종이나 직책도 매우 다양한데, 고하(高下)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식인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도 존경할 만하지만, 다른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경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3-2. 최근에 저희 연구소는 연구의 초점을 당대 지식인과 지식체계에 맞추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민국시기 지식인인데, 민국시기 지식인과 관련된 연구 관점 및 입장은 중국 현대 지식인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당대 지식인 권력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유학한 경험, 대학, 언론 및 정치 등의 요소는 민국시기 권력네트워크의 구성요소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당대 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민국시기의 경험과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과 신분에 대한 탐구는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 지식인들이 ‘학술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구현되었습니다. 지식인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학술사회’라는 이상은 간단히 말하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사회에서 지식의 ‘장엄함’(莊嚴)을 복원함으로써 ‘학술’이 미래사회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지식인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술사회’ 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 중국 근대 지식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士)에서 ‘지식인’으로의 전환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1930년대 발행된 『독립평론』이라는 잡지에 모였던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학술활동과 공공업무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 ‘권력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지식인의 역할을 보면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특징이 분명히 구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지식인을 논의할 때 초점과 똑같이 교육경력,

직위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민국시기에서는 현대에서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는 학교와 언론 등 기본적 ‘영역’(場域)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물론 시대적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학 경력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언론 또한 신문에 국한되지 않고,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물론 지식인의 언론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현대 지식인들은 이와 같이 새로운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를 연구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수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민국시기 독서인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남긴 편지와 일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대 지식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직 축적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자료들은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 지식인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탐구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3-3.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인문학 문헌 외에도 사회과학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 연구나 학술사 연구에서 사회과학적 계량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국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현재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는 근대지식 및 지식계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방법론을 당연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과제는 사회과학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학 이론과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분석이든 현대사회에 대한 분석이든 지식과 지식인과 연계된 사회학의 세부 분야별 이론에 입각해야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계량분석법은 중국의 근대 사상사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벤저민 A. 엘먼(Benjamin A. Elman) 교수는 『철학으로부터 문헌학으로』(*From Philosophy to Philology*)에서 청나라 시기에 강남(江南) 지역에서 활약했던 학술공동체에 대해 계량법을 활용하면서 그들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엘먼 교수가 『황청경해』(皇淸經解)의 저자군을 분석했습니다. 『황청경해』는 광동학해당(廣東學海堂)이 19세기 초에 편찬한 대형 학술총서로 총 75명 학자가 남긴 180종의 고증(考證) 저작을 전문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 총서는 청나라 최초로 광범위하게 경학(經學) 연구를 총괄하여 청나라 한학(漢學) 연구의 대표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후의 한학 학자들은 주로 이 총서를 통해서 17~18세기에 형성된 학술공동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주의할 만한 것은 엘먼 교수의 책에 ▲『황청경해』 저자의 지리적 분포 ▲『황청경해』 저자의 출생 연대 및 가정 배경 ▲『황청경해』 저자의 과거급제 현황 등 몇 개의 테이블이 기재되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더욱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식인을 언급할 때 계량적 분석법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를 계속 활용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학풍의 지리적 분포에 관심이 있으면 양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대 지식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양적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중국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개별적 영역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이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의 어떤 학과, 어느 한 종류의 잡지를 중심으로 계량적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연구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중국 지식인 지형 및 중국 지식인 계보’를 그리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주로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 학술사 및 사상사 등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저희 연구소의 중국 지식

인 계보 제작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초청을 받아 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연구과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연구소가 어떻게 중국의 지식 지형과 지식인 계보를 제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 연구에서 아직 ‘지식 지형’을 해보지 못했지만 ‘사상 지형’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식인 계보’와 같은 용어를 통해 근대문제를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현 단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식 지형’과 ‘지식인 계보’ 두 가지의 핵심적 코드를 통해 이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매우 재미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지형이든 지식인 계보든 모두가 ‘접근 각도’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식 지형과 지식인 계보에 접근 가능한 각도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식 지형을 언급하면 먼저 공간적으로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지형은 공간적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역 차별성과 불균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사회의 불균형성은 이 지도의 핵심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공간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학과 영역에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든 사회학과든 아니면 자연학과든 이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사’는 매우 광범위한 관념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선 어떤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 지형’ 제작에서 지식인 계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 사조(思潮)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신좌파’와 ‘자유주의’ 논

증은 중요한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사조와 결합하면 지식인 계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공간과 지식 영역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여독(旅毒)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시에 진솔하고도 유익한 내용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